

# 입후보 취지문

위원장 입후보자 천길효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박현종

친애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먼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19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자 천길효,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박현종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출마를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의 첫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매년 지속적인 임금 인상 및 매년 최고 지급율의 성과상여금과 각종 제수당 상향 및 신설 그리고 건강검진 및 모범직원 해외연수, 상례지원 서비스 확대 등 복지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며,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진실 되게 대변하고, 조직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며, 모든 조합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측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예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싫어합니다. 현 정부에서 총선 이후 자기 사람 챙기기를 한다면 어떤 인물이 우리 조합의 이사장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경험이 있는 집행부가 구성되어 향후 신입 이사장 및 사측과 기본이 바로 선 건전한 동반자적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각종 교섭에서 지킬 것은 끝까지 지키고 신규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18대 노동조합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고 제19대에서는 개선하여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동지들께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분기별 중앙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교섭위원인 대표위원과 상무집행위원회 등 노조 집행부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직종별, 지회별, 그리고 연령별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깊숙이 이해하고 많은 의견 나눔을 통해 노동조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노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인사제도 개편,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직급 및 직책에서 꼭 필요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강고한 단결만이 우리들을 지켜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최일선에는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더욱 굳건하게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저희에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엄중한 노동조합 선거에서 소중한 표를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입후보자 천길효,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박현종 올림**